



수렵장 개장... 멧돼지보다 농민이 더 불안



주민 총기 사망사고 속 영암·고흥·해남서 본격 운영

수렵철을 맞아 전남 일부 시·군 지역에서 수렵 행위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수렵장 개설 지역 대부분이 민가와 인접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절실하지만 전남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 규정도 허술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해남·영암·고흥 등 전남지역 3곳을 포함한 전국 22개 시·군의 순환수렵장이 일제히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의 경우 올해 허가받은 수렵장(1599.5km) 일대에서 3875명이 야생동물 포획 승인을 받아 수렵에 나선 상황이다. 환경부는 매년 야생동물 개체수 조사를 통해 포획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수렵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렵 허가가 난 지역의 안전 사고 예방 대책은 미흡해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환경부가 '수렵장 총기 사고 예방

수렵장 관리인원 22명 뿐 그것도 생업 종사하며 겸직 능가 100m 내 사격금지 규정 실제 영업 사거리는 250m 사전 안내·철저한 관리를

등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수렵금지 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지역 주민, 등산객 등 입산자 대상 수렵장 홍보' 등을 지시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총기 사용이 가능해데도,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및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남의 경우 현재 순환수렵장 관리인원은 고흥 27명·영암 36명·해남 37명 등 모두 100명으로, 관리 인력 1명당 16km를 책임지는 셈이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 등 공무원을 빼고 수시 투입이 가능한 관리 인력은 영암 6명·해남 8명·고흥 8명 등 22명에 불과하다. 1명당 72.7km(여의도 8배 면적)를 책임지며 맡아야 하는 만큼 총기 사용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또 현행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도로나 인가에서 일정 거리를 떨어져 수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사냥개에 의한 가축·농작물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수렵 시작 전 사전 안내·홍보도 미흡해 밭에서 일하다 느닷없이 총소리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는 게 지역 주민들 설명이다. "수렵철이면 동네 야산에 올라가기가 무서울 정도"라는 말도 나온다.

서 비닐 걷고 김장도 해야 하는데 불안하다. 느닷없이 총소리가 나면 혹시 몰라 밭으로 일러러 나가기 겁난다"며 "(마을에) 노인들만 사는데, (수렵철)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이 수렵지역으로 정해졌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1시50분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야산에서 이모(46)씨가 총을 맞고 숨진 채 길이 약 50cm의 구덩이에서 발견되는 등 을 들어서만 전국에서 모두 4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



두담동 아파트 불 대피 소동

지난 18일 오후 6시50분경 광주시 북구 두담동 A아파트 1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내내면적 100㎡를 태우고 35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119는 위층에 사는 4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희기자 kimyh@kwangju.co.kr

목포해경, 전기감전 中 선원 헬기 긴급 이송



19일 새벽 1시경 진도군 독거도 남서쪽 22km 지점에서 중국을 출발,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중국 선적 컨테이너선 Y호(4822t) 선원 장모(40)씨가 감전돼 위독하다는 긴급 구조 메시지가 목포 해경에 전달됐다. 당시 서해 남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표된 상태로, 5m 높이 파도에 초속 20

m의 강풍으로 선박 운항이 통제된 상황이다. 해경은 그러나 헬기를 급파, 장씨를 안전하게 목포항 국명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다. 장씨는 18일 오후 6시30분경 선박 내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되면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은 선원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기기자 dss6116@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송광은 북구청장 등이 풍선을 흔들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 부인 사기당한 19억 소송으로 되찾아

서울고법 승소 판결

프로골퍼 최경주(43)씨 부인이 자신의 비서와 그 연인에게 사기당한 수억원을 재판을 통해 되찾게 됐다. 최씨의 부인 김모(42)씨는 2011년 박모(34·여)씨에게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김씨는 5년 가까이 알고 지낸 박씨를 믿고 신분증까지 맡겨준 채 비서 역할을 시켰다. 하지만 박씨가 2010년 나이프클럽에서 만난 보험설계사 조모(38)씨와 연인이 된 뒤 문제가 생겼다. 큰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조씨 말에 속아 김씨 돈을 마음대로 송금한 것이다.

조씨는 박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김씨 명의 주식을 팔도록 했다. 박씨는 연인의 제안과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씨에게 보냈다. 이런 사실을 안 김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조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조씨는 상고에 기각됐다. 김씨는 박씨와 조씨의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고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호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총 1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적극 거부 없어도 허락 없이 몸만지면 추행" 광주지법, 여고생 추행·성폭행 택시기사에 징역 3년 선고

적극적인 거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몸을 허락 없이 만졌다면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나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간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9일 여고생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나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간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9일 여고생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나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간 신

이용하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담배를 받거나 용돈을 빌리는 등 일방적인 피해자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기는 했다"면서 피해 진술이 믿을 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의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560억 횡령 교수공제회 이사

대법,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수들이 맡긴 돈 50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 부동산 구입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범죄상 횡령,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 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6천770여억원을 받아 이 중 5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마트서 신발·식료품 포장 뜯고 '슬쩍'

생다발

○광주의 한 대형 마트에서 물품의 골포장을 뜯어낸 뒤 안에 든 물품만 몰래 가지고 나온 4대 주부가 경찰서행. ○19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신모(여·47)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A마트 신발매장에서 10만원 상당의 신발을 훔치는 등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80만 원 상당의 신발과 식료품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 ○신씨는 골포장을 뜯고 안에 든 신발·식료품만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물품을 훔쳤는데, 신씨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보안요원에 의해 범행이 들통.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권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는길 **선운자구** 영광 → 호남대학교 → 어등산골프장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세계적 푸르른 양산다. 친환경 나비의 고향 합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프론트(신입 및 경력) 남·여 0명
 - 코스관리(신입 및 주임급) 남 0명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골프장 유경험자 우대
3. 급 여
 - 연봉제(면접 후 결정)
4.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소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 포상, 단체여행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
 - * 이력서 우측상단 지원분야 및 희망연봉 기재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7. 접수처
 - 주 소: 전라남도 합평군 학교면 서당대길 242
 - 담 당: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061-320-7717
 - 팩 스: 061-320-7710
 - 이메일: seungtae01@naver.com

임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고고투어 제주도 가을 패키지

제주도 힐링 패키지

- 목포 선박(씨스타크루즈) 139,000원~
- 원도 선박(블루나래) 192,000원~
- 아시아나항공 216,000원~

연생품: 우도행/마라도행/영양행/아우어러/산도케이(제주,우도)~*109종도

제주도 골프 제주도어어기(항공+호텔+렌터카)

제주 6성 신라호텔과 함께하는 제주여행 특가

- 대인 510,000원~579,000원까지
- 소인 337,000원~397,000원까지

왕복항공료유류세 불포함 10월기준 24,200원/노티나 48시간기준+호텔2박(조식포함)

제주 6성급 해미치 호텔과 함께하는 제주여행 특가

- 대인 510,000원~579,000원까지
- 소인 181,000원~242,000원까지

왕복항공료유류세 불포함 10월기준 24,200원/노티나 48시간기준+호텔2박(조식포함)

에어 패키지

- 큐슈여행 패키지 4인(제주출) 439,000원~
- 장사장기 3박 4일 699,000원~
- 북경 명동 PKG 3박4일(무안) 549,000원~
- 상해 황동산 PKG 3박4일(무안) 579,000원~
- 베트남 김포디 PKG 4박 6일 799,000원~
- 필리핀 PKG 3박 5일 499,000원~
- 홍콩 3박4일 PKG 629,000원~
- 라시야 블라디 보스톡 4박 5일 598,000원~
- 방콕 파타야 5일 549,000원~
- 괌5일 FC 849,000원~
- 사이판FC 4일(오전출) 649,000원~

국내골프

- 리온골프빌1박 리온골프장18홀+골프장 자유선정1곳 18홀 395,000원 ~ 459,000원까지(제주CC~블랙스톤CC)
- 그랜드호텔 골프 패키지 그랜드호텔1박 422,000원 ~ 486,000원까지(제주CC~블랙스톤CC)

고고투어 예약문의 T.1599-0968 F.062)443-1040